

사회

인화학교 복지법인 허가 취소... 학생들 어떻게 되나

학생 22명 모두 전학 보낸다

기숙사 '인화원' 7명은 구청과 협의 아동 시설로

광주시교육청이 교직원들의 학생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인화학교 재학생 22명 전원을 전학조치하기로 방침을 정하는 등 학교폐쇄 조치에 돌입했다.

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복지법인인 인·허가법인인 광주시 등이 인화학교 운영주체인 사회복지법인 우석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재학생들을 전원 전학시키되 차질없는 교육을 위해 특수교사 확보, 학습공간 마련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이들 전원을 전학시키기 위해 5일 인화학교 재학생 학부모 간담회를 열어 전학 희망학교 등을 파악, 가능한 학부모들이 원하는 곳에서 교육할 방침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대안은 특수학교인 선광학교, 선명학교에 이들을 전학시키거나, 특수학급이 개설돼 있는 광주 전

한 관계기관 협의도 진행중이다. 이들은 부모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이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 인화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화원에서 숙식하는 학생들의 경우 별도 거처 마련되지 않으면 전학해도 인화원에서 통학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며 "광주시와 자치구 등과 협의해 별도의 아동 수용시설에서 이들을 돌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인화학교 현직 교사 20명 가운데 성폭행이나 학내 비리와 관련이 없는 교사들은 선별해서 공립 교사로 채용할 계획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장애우·아동 보호시설 46곳중

CCTV 12곳·비상벨 6곳 설치

"방법시설 크게 부족"

광주 지역의 장애우, 아동 보호 시설에 CCTV와 비상벨 등 방법 시설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에 있는 특수학교 5개, 장애우 보호시설 22개, 아동보호시설 19개 등 46개의 장애우·아동 보호시설 가운데 CCTV는 12곳, 비상벨은 6곳에만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총 설치 대수는 CCTV가 91대, 비상벨이 13대였다. 특수학교 5곳에는 모두 39대의 CCTV가 설치됐지만, 비상벨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우 보호시설 가운데는 CCTV와 비상벨이 설치된 곳이 각각 2곳에 불과했으며 아동보호시설도 CCTV는 5곳, 비상벨은 4곳에만 설치됐다. 한편, 광주에서 발생한 장애우 성폭행은 2009년 34건, 지난해 41건, 올해 8월까지 25건이 있으며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은 2009년 34건, 지난해 30건, 지난 8월까지 20건이었다.

46개 시설에서 생활하는 학생 또는 입소자는 특수학교 998명, 장애우 보호시설 822명, 아동 보호시설 788명 등 모두 2608명(남자 1521명, 여자 108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30분 해질 18시 12분 달출 14시 16분 달몰 --시--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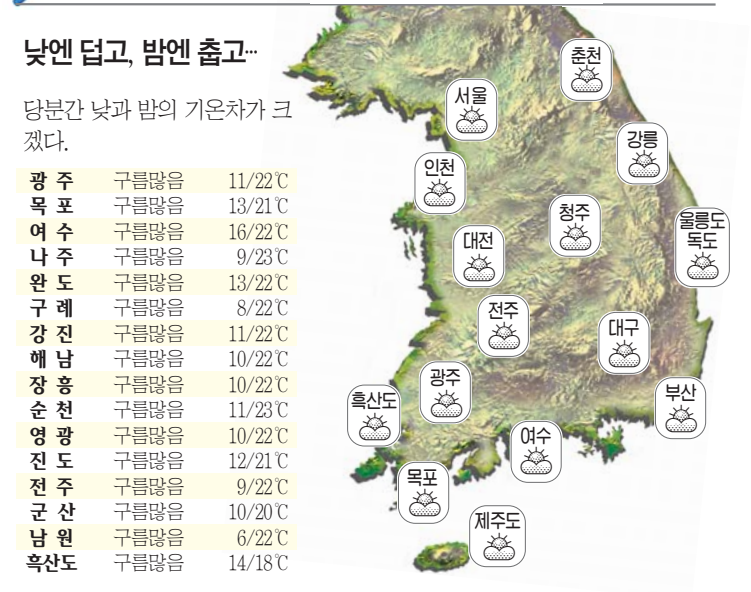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different regions (Seoul, Gwangju, etc.) including temperature ranges and precipitation probabilities.

Table with daily weather forecasts for the week, including high/low temperatures and moon phases.

광주·전남 초등학교사 등 702명 선발

유치원·특수교사도 올해에 비해 광주는 51명, 전남은 53명이 늘었다. 원서접수는 10일부터 14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한다. 1차 시험은 다음 달 12일, 2차 시험은 12월10일에 실시되며 최종합격자는 내년 2월3일 발표될 예정이다. 선발 인원이 늘어난 것은 섬지역 등 전남의 지역적 특수성과 기간제 교사 퇴직 결원 보충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YMCA 관계자들이 4일 광주시의회 정문에서 시의회 상임위의 '광주 학생인권조례' 수정·통과안에 대해 '제정 취지를 훼손하는 조항'이라며 재수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의회가 학생인권 제한이 가능한 문구를 해당 조례에 넣었다'고 주장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부실대학 연명 돈벌이 차단

내년부터 시간제 등록생 입학정원 10%내 제한. 개선편에 따르면 비수도원에 있는 대학은 정규 학생과 통합해 수업을 받는 시간제 등록생(통합반)을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만 선발할 수 있다. 수도권 대학은 현재도 10% 이내 등록생을 뽑아야 한다. 최근 무더기 비리로 학교폐쇄 통보를 받은 순천 명신대는 상반기에 입학정원 200명의 8배가 넘는 1700명의 시간제 등록생을 선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K' hearing aid products. Features a cartoon knight on a horse and text: '말 소리가 잘 안들린다구요? 국제보청기'.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Advertisement for '자유투어' (Free Tour) travel agency. Promotes '20년 한정 단 하루!' (20th Anniversary Special One Day!) with '무안공항출발 방콕전세기!!' (Mu-an Airport Departure Bangkok Private Jet!!) for 399,000~. Lists various tour packages and prices.

Advertisement for '마감임박 20년 한정 단 하루!' (Closing Soon 20th Anniversary Special One Day!) featuring '무안공항출발 방콕전세기!!' (Mu-an Airport Departure Bangkok Private Jet!!) for 399,000~. Lists various tour packages and prices.

Advertisement for '인천공항 출발' (Incheon Airport Departure) travel agency. Promotes '초특가 상품 -9,10,11월 출발기준-' (Super Special Price - Starting from 9, 10, 11 months departure). Lists various tour packages and prices.